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중 윤
 Lee, Jong Yun, Ph. D., D.D., D. D.

설교목사
 Preaching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진정한 믿음의 열매” (Fruits of the Faith)

■ 사무엘상 2장 1-11절

오늘 본문말씀의 주인공인 한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브닌나의 공격을 계속 받아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격분되어서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순간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중 사무엘이라는 너무도 자랑스러운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이후 세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더 낳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로서 그의 기도와 헌신이 성령에 기록되어 오고가는 세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승리의 여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한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나처럼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한나의 믿음은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기도과 쌍벽을 이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삼상2:2절). 한나는 기도의 서두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주님과 같은 반석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나는 아주 절묘한 대칭법을 사용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과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삼상2:4절).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분의 절대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며 그분의 뜻은 분명히 이뤄진다는 놀라운 고백이 한나의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믿음은 분명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기뻐하고, 그 지식이 우리의 찬양과 노래가 되며, 그 지식으로 인한 믿음과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 한나의 믿음은 삶의 태도와 몸의 상태를 변화시켰던 실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한나의 믿음은 신학적인 지식과 추상적인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그의 삶 전체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나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삼상1:18절) 한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음에 근심과 격정, 그리고 불안에 빠져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닌나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원통함과 격분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눈물로 나날을 보냈고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한 후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굳게 한 후에 그의 근심과 격정,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원통함과 격분됨도 사라졌습니다. 왜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 한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는 순종으로 이어진 믿음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자, 그를 젖떼기까지 키우다가 그를 정할 하나님께 드려 성전에 머물게 합니다(삼상1:27-28절).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서원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자신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삼상2:21절). 한 아들을 드렸더니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아들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가는 모든 세대에 말씀을 불을 밝히는 귀한 종으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의 진정한 열매인 것입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큰 믿음을 주님께 구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Ⅱ층
주 일 예 배	Ⅰ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 9시 50분	본 당 Ⅱ,Ⅲ,Ⅳ층
		분 반 공 부	오전 10시 - 10시 30분	
	Ⅱ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Ⅲ부	(경배와찬양) 청 년 예 배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 3시 10분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Ⅱ,Ⅲ,Ⅳ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5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20분	본 당 Ⅱ층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12개월)	I 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장 년 부		I 부 (30대)	오전10시/오후3시30분	401호/702호	
	유아부(13개월-4세)	II부				오전11시20분	유아부 706호	II 부 (40대)	오전10시
유치부(5세-7세)		III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III부 (50대)
	V부(70대이상)		오전10시				301호		
						사 랑 부		오전10시30분	102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호	에바다부		I 부	오전11시20분	본당	
초 등 부		오전 10시	101호			II부	오후2시	603호	
중 등 부		오전 10시	501호	English Bible Class		오후12시30분		101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호	새 가 족 부		I 부	오전10시	602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호			II 부	오후12시40분		
청년 1,2부		오후 3시20분	603, 601호			III부	오후3시20분		
대학부 토요집회		오후 4시	501호			학습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2호	
청년1,2부 토요집회		오후 5시	603, 601호			세례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9호	
신혼가정부		오후3시20분	802호	소요리문답부		오전10시,12시40분		801호601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3호	신앙강좌 I·II부		오후 12시40분		904·701호	

우리의 비전(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목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노현상 황광 박종민 문정훈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전도사 지혜영
 영어목회담당목사 Joshua Cho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영한 김제진 김은수 김철홍
 선교사 강아름·주한나, 이사라, 권요셉·조에스더, 김모재·이한나(동아시아),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지흐스탄)
 스페인·포르투갈, 노남해, 박진영·김미성(영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범영·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임
 (말라위),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이종길·홍미영(말레이시아), 손신일·민태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서·현해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광강·최사라(동남아시아),
 박봉규, 김태식, 윤영모, 추수희, 노신애, 이금순, 김병일, 김덕수(군선교), 김종일·백은미(터키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Thauan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미얀마)

- Welcome to our worship!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 We thank Dr. Timothy Cho (조진모 목사) for graciously preaching for us today! Dr. Cho was one of the guest preachers for our church's Red Sea Strategy Event last year. He is currently a professor of church history at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 Please join one of our English Bible classes after fellowship to get plugged into our community.
- Every Wed at 8:30pm, we meet in Room 603 to study the Gospel of John. Please join us!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찬 양 예 배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문정훈 목사	문정훈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유문건 목사	이복규 장로
III 오후 2시	박광일 목사	이관규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신 64-5 ...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 다 함 께
* 신약교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4(삼하 1) ... 다 함 께 2부 125(사순절2)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363(479) ...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심상 3:10-21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헌금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 박노철 목사 (Two sons of Eli, and Samuel)
* 찬 송 Hymn	199(234) ...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오후 5시

·인도·설교 박노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16:12-14 ... 인 도 자
찬 송	182(169) ... 다 함 께
기 도	김혜수 집사
찬 송	452(505) ... 다 함 께
성 경	롬 8:26-30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설 교 자
특별찬양	말 은 이
* 찬 송	216(356) ... 다 함 께
* 축 도	다 함 께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I부: 최성희 권사 II부: 김연화 권사
성 경	느 5:14-19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최선을 다한 자의 겸손한 기도" 설 교 자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분당

피아니스트: 한현숙 · 홍혜란 · 김영원

설 교 ... 박노철, 박광일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20분

분당 2층

설 교 ... 박노철 목사

* 표는 화중 모두 읽어서는 됩니다. () 는 봉원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리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부	가브리엘	호산나	박지훈	유태왕	최주연	조현정	윤주일
II부	할렐루야	갈보리의 사랑	Robert Sterling	고성진	김현정 II	김양연	박광서
III부	임마누엘	여린양의 보혈로써	Bruce Greer	류종기	강만정 I	양경실	이희진
찬양예배	베들레헴	은 땅 주님의 것일세	Mrs. R. R. Forman	김나현	오신옥	박수강	
영어예배	예루살렘	Come, Follow Me	Elly & Steve Kupfershmid	심상희	최수환	이승민 I	
수요 I부	호 산 나	여호와를 우러리	최기욱	서희숙	김윤지 II	홍혜란	
수요 II부	시 은	그 옛날 주가 계신 길	Kenneth Downing	백경화	이순재	변지원	

<현금송>

I부	중 등 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민주3	박소연3
II부	다이스텐드빌	에스겔이 수레를 보았네	Hurt Morris	송재필
III부	아멘관현악단	Hosana, Loud Hosana	Ken Baker	임병창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최영규	1-8	안도아	본인	김은혜	9-4	청년부	본인	이원도	16-20	고등부	전현주/이영수	
김영숙	5-13	다이스코라	박광일	라비카	7-7	영아예배부	유윤상	황진선	13-11	고등부	양옥희/박정화/송희	
채진균	1-8	마리아	본인	유동권	6-10	청년부	본인	아다혜	14-22	다이스코라	박광일	
상수환	11-5	베드로	이유희/사순회	마르틴	7-9	영아예배부	유윤상	박광일	1-23	중등부	김태영/안혜성	
김영미	16-20	보비	전현주/이영수	오기석	9-5	사랑부	이유희/이소연	최정옥	1-8	중등부	본인	
김남용	7-8	베드로	이소연/이판모	우창우	14-14	다이스코라	박광일	박동연	13-6	중등부	박길희/황선숙	
유정화	11-5	보비	이유희/사순회	성동현	11-5	사랑부	이유희/사순회	야말여	14-22	다이스코라	박광일	
배광석	13-18	안드레	김광일	송효진	12-14	사랑부	이유희/이소연	주소정	교육 1 국	초등부	박이선/서지민	
최정희	13-6	부다아	박길희/황선숙	송예은	6-6	사랑부	이유희/전만애	박재연		초등부	본인	
현미	1-11	도르카	본인	김나희	7-8	사랑부	이소연/이판모	배소준		초등부	김필임	
한은경	13-18	도르카	김광일	김정현	16-1	대학부	본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장정희	14-22	다이스코라	박광일	신지연	11-5	대학부	이유희/사순회					

~앞면에서 계속

10. 일제심방 / ·22일(화) : 1-10, 14-12 ·24일(목) : 1-6, 6-11, 14-13 ·25일(금) : 1-11, 5-5, 14-11

● 결혼

1. 윤영석 군(윤상균 박전희씨의 차남)과 김다희 양(12교구 김기수 성도 황영란 성도의 차녀)
/ 26일(토) 오후1시 서울교회

● 장례

1. 故 박규년 집사 (15교구 박홍례 집사 모친, 우마란 집사 사부) / 17일(목) 별세 19일(토) 발인

기도의 능력

해무기의 위력보다도 큰 힘이 기도 능력이다. 산골짜기 외딴 초가에서 무릎꿇고 기도하는 할머니의 조국을 위한 기도가 강대국이 갖고 있는 해무기 전체의 힘보다도 더 큰 힘이 된다.

기도는 우주를 지배하는 힘이 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6개월 간 비를 멈추게 하였고 또 비를 내리게도 하였다. 기도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짝아 만든 우상이나 도를 힘이 없는 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해메는 명상과도 다르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구하되 진실하고 열심있게 구해야 한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찾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오늘날도 이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쉬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번영과 안녕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모두 감사하자.

-이종윤 목사 신앙 컬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